

# 기업투자 수도권 '쏠림' 지역후퇴 가속화

### 특례법 남발... 수도권 면적 35% 규제 풀려

### 지난 9년 지방 신·증설기업은 530곳 불과

2000년대 들어 수도권규제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각종 특례법이 남발되면서 기업투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타법 개정으로 인한 특례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됐지만, 2000년대 들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법이 잇따라 제정되면서 수도권 전체면적의 35% 수준인 경기도 내 4070km<sup>2</sup> 부지에 대해 공장과 4년제 대학의 신·증설 및 이전 등

에 관한 규제가 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규제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법 현황을 보면, 지난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시작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 특별법 등이 잇따라 제정됐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169.5km<sup>2</sup>의 면적이 규제에서 풀렸다. 이 때문에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 한국자엠·삼성 바이오로직스·동아제약 등 국내외

기업 56개와 조지메이슨대학교 등 4개 대학이 입주할 예정이다.

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특별법으로 453.3km<sup>2</sup> 면적이 규제에서 제외됐고 만도와 롯데제과 공장 등이 증설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경기도·인천시 내 15개 시군구 3447.9km<sup>2</sup>에서 각종 제한이 사라져 공장과 대학 입주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중 99.8%가 경기도 지역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국내기업 유치실적(지방이전·지방신증설·국내U턴 등 포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시행된 '지방투자 촉진 정책'에 따라 지난 9년간 지방에 공장을 신·증설한

기업은 총 530곳으로 연평균 58곳에 불과했다.

문제는 현재도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지난 2009년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비롯해 현 19대 국회에도 이미 수도권 규제 완화법이 4개나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수도권 지자체와 정치권의 압박으로 이미 수도권 규제가 상당 부분 무력화돼 있다"며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균형발전은 시대 최대 과제"라며 "기업의 지역이전 유도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에 최우선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 천주교 광주대교구 26년만의 거리행진 "국정원 개혁하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12일 오후 광주시 남동5·18기념성당에서 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 주례로 '국정원 사태의 올바른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미사'를 봉헌하고 금남로를 지나 북동성당까지 목주기도 행진을 벌였다.

1987년 6·10 민주항쟁 이후 26년만에 이뤄진 이날 거리행진에는 교구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등 1100여명이 참석했다.

김희중 대주교는 미사에 앞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는 오랜동안 독재에 항거해 피와 땀,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 이룩한 민주주의 체제와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다"며 "대통령의 발언과 기록물을 공개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나라의 국격과 품격을 실추시킨 일로 목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인기자 kki@ /사진=최현배기자 choi@

# 채동욱 총장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

### "유전자 검사 조속히 실시"... 조직 안정 위한 '강수'

'훈의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한 채동욱 검찰총장(사진)의 대응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보도를 통해 내연녀로 지목한 임모씨(가명)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로도 채 총장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의혹 제기가 채 총장 개인을 넘어 국가 사정기관으로서의 검찰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채 총장은 '훈의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및 중재 절차를 뛰어넘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방법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채 총장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조선일보 보도와 맞물려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채 총장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도 확산되지 않은 채 확산하고 있다.

검찰은 채 총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이에 편승한 악의적 루머가 퍼지면서 채 총장과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채 총장과 별도로 조직 차원에서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의혹 제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검찰 전체의 사기와 수사 중인 사안 등에 실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개인적 문제와 검찰 전체의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남스

# 전남 농림축산물 한·중FTA 초민감 품목 포함돼야

농림축산물을 포함하도록 건의했다.

지난 5일 한·중 FTA 제1차 협상에 서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됐고, 그 결과 전체 품목수 1200여개의 90%가 관세 철폐되고, 나머지 10%가 초민감 품목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농업 비중이 큰 전남도는

에서는 식량작물, 양념채소류, 과수, 특용 및 약용작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등 농림축산물 전반에 걸쳐 피해가 예상돼 전남도가 농산물 180여개 품목을 민감 품목에 포함시켜 주도록 건의한 것이다.

앞서 전남도는 한·중 FTA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6개 분야, 88명으로 구성된 FTA 대응대책 TF팀을 운영하여 팀별 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농림축산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전남도 임영주 농림식품국장은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FTA로 인한 이익을 농업·농촌에 재투자하는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 겨울철 내복임은 국민 절반 넘었다

### 통계청 녹색생활조사... 대중교통 출퇴근 29% 저조

우리나라 국민 중 겨울철에 내복을 입는 비율이 2년 만에 절반을 넘어섰다.

기후변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84%에 달했지만,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은 29%로 저조한 편이었다.

통계청은 12일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 현황을 조사한 '2013년 녹색생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지표는 전국 9720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 1만9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열흘 동안 조사한 결과를 집계한 것이다.

◇소득 높고 나이 어릴수록 내복 안 입어=주요 녹색생활지표를 보면 겨울철 내복을 입는 비율은 56.8%로, 처음 녹색생활조사를 한 2011년(48.2%)에 견줘 8.6%포인트 높아졌다.

연령별 내복을 입는 비율을 2011년과 비교해보면 40대가 10.4%포인트(40.4%→50.8%)로 가장 많이 늘었고, 20대도 8.6%포인트(21.3%→29.9%) 증가했다. 가구소득 수준을 보면 200만원 미만은 69.1%가 내복을 입었지만 600만원 이상은 49.7%만 착용했다.

◇출퇴근할 때 승용차 45.9%, 대중교통 29.1%=기후변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다는 응답은 83.8%였다. 20세 이상 인구의 92.9%는 사람들의 생활습관 때문에 환경이 훼손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통근수단별 이용률을 보면 승용차·소형승용차가 45.9%로 가장 높았고, 대중교통(29.1%), 걸어서(15.5%), 자전거(2.2%) 등의 순이었다.

친환경 먹거리와 관련된 친환경 농산물을 사려고 노력한다는 비율이 52.5%로 4.4%포인트 낮아졌다.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는 68.1%가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려 했지만, 200만원 미만 가구는 44.1%에 그쳐 격차가 벌어졌다. /연남스

# 복지급여 수급자 사망시

### 자동 지급 10월부터 중단

허술한 복지급여 체계 때문에 관련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각종 복지 급여를 받던 사람이 숨겨 시스템상 사망 신고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모든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 결정 과정에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인 소득인정액에 2천만원이하의 이자소득자들의 생활습관 때문에 환경이 훼손된다고 생각했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능 및 부응수급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안전행정부로부터 주민전산망의 사망자 정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등급판정 정보 등을 모두 받아 9월까지 사망자·장애인 복지 수급 자격을 일제히 정비한다. 이후 10월경부터는 아예 사망 신고와 함께 주민전산망에 사망자로 일단 등록되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통해 자동으로 해당 수급자에 대한 모든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 /연남스

## 편백경침경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등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경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 편백 경침 경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 편백 경침 경용 [음성카운터](주박용) 50,000원
- ▶ 편백 경침 경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 편백 경침 경용 발목펌프(주박용) 30,000원

제일건강 | 문의전화: 010-7510-2000 |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컵술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식후 혈당상승 억제!!

- 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AUM NAVER | 백세생활건강 | 을 검색하세요

문의전화 1899-3975 H.P 010-3598-7080

## 현장직 사원모집

전문인력관리회사인 당사에서는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근무가능한 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급여 : 1,800,000원
- 상여금 300%분할지급 (3개월 후부터)
- 6개월 이상 근무시 정규직 가능, 상여금 400%
- 근무시간 08:30~17:30 + 3시간 연장, 토요일 특근
- 여자사원은 35세 이하(경력자 40세미만 까지)
- 남자사원은 35세 미만으로 군필자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주민등록등본 각1부
- 근무지 : 하남 7번도로, (주)금호전기

초보직가능, 즉시근무, 장기근무가능, 직업환경좋음.

주식회사 엠지  
TEL. 062-681-5588 HP. 010-2580-3744  
FAX. 062-681-5586

※버스운행: 두암동 → 문흥동 → 오지 → 일곡 → 양산동 → 첨단지구 → 신창지구 → 신가 → 운남지구 → 월곡동

##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